

n번방 사건에 관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의 관계: 간접 외상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김 차 영¹⁾

박 혜 경[†]

본 연구는 20대 성인의 n번방 관련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총 22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25.0을 통해 분석한 결과, n번방 사건이 밝혀진 직후 관련 뉴스를 많이 접했을수록 당시에 더 높은 수준의 간접 외상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 외상은 당시 뉴스 노출과 현재의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즉, 당시 뉴스 노출량이 많았을수록 간접 외상 수준이 높아졌으며, 높은 수준의 간접 외상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재난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도 뉴스를 통해 제3자인 사람들에게 간접 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뉴스 노출이 간접 외상을 매개로 세상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대 성인에 한정되었으며, 연구 참가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추후 더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후속 연구로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의 관계를 정서 전염이 매개 혹은 조절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n번방 사건, 뉴스 노출, 간접 외상, 세상에 대한 신념

1)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생

† 교신저자 :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E-mail: hpark@sungshin.ac.kr

2019년 처음 보도된 n번방 사건은 여성을 협박하여 촬영한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으로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 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의미하는데(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영구화될 수 있어서 몹시 심각한 범죄이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일례로, 미디어오늘(노지민, 2020)은 한 30대 직장인이 모자이크된 성 착취 이미지를 보고 역겨움을 느꼈고, 악몽을 꾸었으며, 이유 모를 무력감을 겪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많은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 걱정하였으며(이혜정, 2020), 많은 여성은 자신의 주변에도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을 경험하였다(김주환, 2020). 더불어,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사람의 수가 270만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한 해 동안 n번방 키워드를 언급한 트위터 게시물이 480만 건에 달하는 등(트위터, 2020) 많은 이가 함께 분노하고 행동하였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발생한 범죄라기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용인하였던 순간들이 쌓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희진, 2020; 김한균, 2020). 이와 관련하여, n번방 중 하나인 ‘고담방’을 운영하며 링크를 자신의 블로그에 유포한 ‘와치맨’은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한 바 있다(특별취재팀, 2019). 소라넷은 1999년 세상에

처음 나타난 디지털 성범죄 전시 사이트로, 개설 이후 약 17년 만에 폐쇄되었으나 운영자 단 한 명만이 징역형을 받았다. 그리고 살아남은 소라넷의 후예들은 AV스톱, 다크웹 ‘웹캠 투 비디오’ 등을 거쳐 텔레그램 성 착취에 이르게 되었다(김희진, 2020). 이처럼 오래전부터 반복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숨방망이 처벌은 많은 이들의 감정을 해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n번방 사건을 접한 개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였을 것인가? 이러한 범죄를 접하는 것이 부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신념도 바꾸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n번방 사건에 관한 뉴스에 노출됨으로써 간접 외상을 겪고, 세상에 대한 신념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오늘날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일상에서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접하기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뉴스 노출의 심리적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성범죄는 분명한 외상 사건이므로, n번방 사건과 같은 참혹한 외상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한 상황에서 개인이 정서적·인지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간접 외상의 정의

간접 외상(indirect trauma)의 정의는 아직 하나로 합의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접 외상이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와 대리 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는 선행 연구(손승희, 2014; 한효정, 김민, 남상인, 2017; Gottfried, 2010; Knight, 2013)의 정의를 따랐다. 먼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직접 외상을

경험한 후에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처럼, 외상의 간접 경험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Figley, 1995). 반면, 대리 외상은 외상 경험에 노출됨으로써 일어나는 인지 도식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McCann & Pearlman, 1990).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둘 중 하나만이 다루어졌으나, 두 요소 모두 간접적인 외상 노출의 영향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여러 연구자들은 대리 외상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관성이 존재함을 밝히고(Gottfried, 2010; Jenkins & Baird, 2002), 이러한 결과가 높은 공존 타당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Jenkins & Baird, 2002). 더구나 국내에서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대리 외상을 모두 간접 외상으로 번역하는 등(e.g., 박상의, 정유지, 이정현, 2018; 백준혁 등, 2010) 용어의 혼선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간접 외상으로 두 요소 모두를 아우를 때 간접 외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학술적인 진척을 이루기 더 수월해질 것이다(Gottfried, 2010).

기존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대리 외상은 주로 상담자(김보경, 2012; 이미혜, 성승연, 2014; Sexton, 1999), 간호사(김현주, 최희정, 2012; Duffy, Avalos, & Dowling, 2015), 그리고 경찰(류경희, 김태경, 2017; MacEachern, Jindal-Snape, & Jackson, 2011)과 같이 외상 경험자를 조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김지은(2013)은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인 누구나 외상 경험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접 외상을 정의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재난 및 범죄와 같은 사건 사고를 직접 겪는 사람보다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므로, 미디어를 통한 간접 외상의 수준과 양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대한 신념과 그 구성 요소

세상에 대한 신념(world assumptions)이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및 기대를 의미한다(Janoff-Bulman & Frieze, 1983).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Janoff-Bulman, 1989). 첫 번째 차원인 세상의 자비(benevolence of the world)는 타인과 세상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신념이다. 이때 세상이 자비롭다고 생각할수록 세상은 좋은 곳이고, 불행은 비교적 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비롭다고 믿을수록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친절하고, 자상하다고 믿게 된다. 두 번째 차원은 세상의 의미(meaningfulness of the world)이다. 이는 좋고 나쁜 일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발생한다는 신념인 정의(justice),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인 통제력(controllability), 그리고 이와 반대로 세상의 일들은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생각인 우연성(randomness)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차원은 자기 가치(worthiness of self)로, 이는 자신을 가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신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상에 대한 신념의 세 차원 가운데 자기 가치를 제외하고, 세상의 자비와 세상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기 가치를 제외한 이유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외상 사건은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기존중감 혹은 자기와 관련한 신념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n번방 사건에 반영된

폭력은 상대방의 적대적인 의도를 전달하고, 이를 마주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비로우며 세상은 의미 있다’라는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Poulin & Silver, 2019). 그러므로 n번방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세상의 자비에 관한 신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Wagner, McFee, & Martin, 2009). 그리고 n번방 사건과 같은 나쁜 일이 무고한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세상의 의미에 대한 신념이 흐트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Wagner et al., 2009).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n번방 사건 관련 뉴스 노출에 의해 간접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론하였는데, 이는 미디어 의존 이론(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을 통해 부분적으로 뒷받침된다. 미디어 의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디어에 의존한다(Ball-Rokeach & DeFleur, 1976). 특히 재난과 같은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증가하는데, 대중매체가 이러한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Lowrey, 2004). 한 예로, 2~30대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조사 연구(Li, Yang, Zhang, & Zhang, 2019)에서 소셜 미디어 의존도와 비상 상황에서의 소셜 미디어 사용 의도 사이의 관계를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수집이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즉, 소셜 미디어에 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려 하며, 그로 인해 소셜 미디어 사용 의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개인의 인지, 감정,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Ball-Rokeach & DeFleur, 1976). 그러므로 n번방 사건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의 발생은 개인의 미디어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이로 인하여 매체에서 접하는 언론 보도가 개인의 감정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 간의 연결고리는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 동안 사건과 관련된 TV 시청을 적게 한 집단, 중간 정도로 한 집단, 그리고 많이 한 집단 중에서 시청을 많이 한 집단의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Ahern, Galea, Resnick, & Vlahov, 2004). 더불어, 9.11 테러 1주기 관련 TV 방송을 긴 시간 동안 시청하는 것과 PTSD의 새로운 발병 간 연관성이 밝혀지기도 하였다(Bernstein et al., 2007). 또한, 국내에서도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뉴스 노출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증가시켰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한편, 이홍표 등(2016)의 연구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후 시간이 흐를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감소하였던 점과 사회적 사건 발생 직후 첫 7일 이내의 뉴스 노출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이홍표 등, 2016; Ahern et al., 2002; Ahern et al., 2004; Silver et al., 2013)의 결과를 토대로,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후 일주일 동안의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 사이의 관계가 가장 밀접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간접 외상과 세상에 대한 신념의 관계

나아가서, 간접 외상에 의하여 세상에 대한 신념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외상 경험으로 인하여 세상에 관한 기본적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Janoff-Bulman, 1989; McCann & Pearlman, 1990; Poulin & Silver, 2019).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 도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Janoff-Bulman, 1989), 외상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개인이 지니고 있던 믿음과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이는 곧 신념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6; 정의문, 2014; 조용래, 2012; Janoff-Bulman, 1989; Magwaza, 1999; Matthews & Marwit, 2004; McCann & Pearlman, 1990; Poulin & Silver, 2019; Schwartzberg & Janoff-Bulman, 1991; Wagner et al., 2009).

직접적인 외상 경험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간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지지된다. Magwaza(1999)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는 등의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세상과 타인에 관하여 더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Matthews와 Marwit(2004)은 사별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상을 덜 호의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국내에서도 세월호 사건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의 외상 경험에서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시선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한 질적 연구가 있다(이동훈 등, 2016). 이 연구에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자신과는 다르게 일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거리감을 느꼈으며, 세월호 사건을 대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와 어른에 관

한 불신이 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간접적인 외상 자극으로 인한 인지 체계의 변화 가능성은 정의문(2014)의 연구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간접 외상이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 외상을 겪은 사람들에게서도 세상에 대한 신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규모, 심각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매개 변수로서의 간접 외상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간접 외상이 n번방 사건 직후에 관련 뉴스에 노출되는 것과 세상에 대한 신념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뉴스 노출이 개인의 인지 도식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많지 않으나, 뉴스가 테러, 시위, 폭동 등과 같이 주로 폭력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소식을 더 길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Aronson, 2011),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예를 들어, 뉴스를 시청함으로써 사람들은 실제보다 자신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할 수 있으며(Gilovich, Keltner, Chen, & Nisbett, 2016), 실제로 TV 시청과 범죄에 관한 두려움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Chiricos, Padgett, & Gertz, 2000).

뉴스가 개인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도 존재한다. 일례

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Han, Sun, Gao, Zhou, & Jou, 2019)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뉴스를 읽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내용의 뉴스를 읽은 집단이 유의하게 더 부정적인 사회적 신뢰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이 접하는 뉴스는 그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뉴스 노출이 간접 외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외상 경험은 세상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접 외상이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n번방 사건에 관한 뉴스에 노출되는 것이 간접 외상 경험이 되어 세상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가설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가설은 아래와 같았다.

가설 1. n번방 사건 직후 관련 뉴스에 노출된 정도와 간접 외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

념은 서로 유의한 상관을 가질 것이다.

가설 2. n번방 사건 직후 관련 뉴스에 노출된 정도와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를 간접 외상이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n번방 사건의 피해자 및 주요 가해자와 비슷한 연령을 가진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참가자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일원 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약 1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도에 탈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참가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에 동의한 사람은 총 278명이었으나, 연구 대상 연령에 맞지 않거나, 설문 작성을 끝마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하고 228명(여성 81.6%)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3.49세($SD =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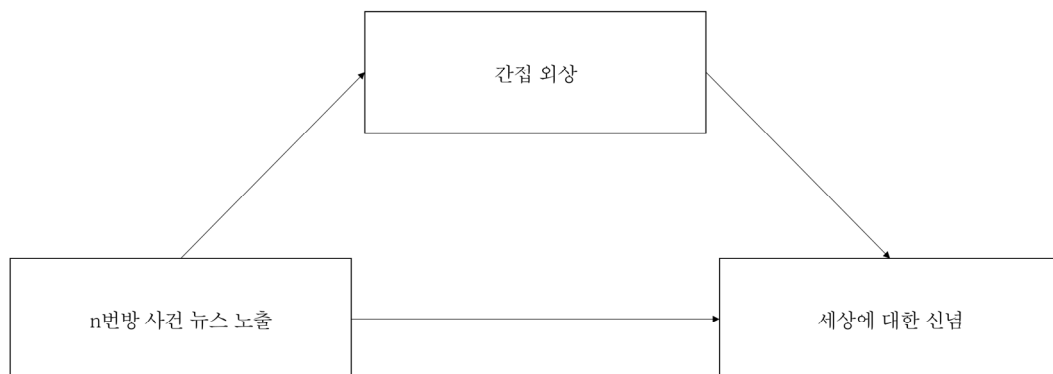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였으며,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46.5%)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였다(43.4%).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45.6%)와 경기도(28.5%)가 가장 많았다. 끝으로, 종교적 배경으로는 무종교(66.2%)가 가장 많았고, 개신교(11.4%)가 그 뒤를 이었다.

측정 도구

뉴스 노출

n번방 관련 뉴스 노출 질문지는 이흥표 등 (2016)이 개발한 세월호 사고 뉴스 노출 관련 질문지와 미국의 9.11 테러 관련 TV 뉴스 노출 질문지(Ahern et al., 2004; Bernstein et al., 2007; Silver et al., 2006)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더불어, 매체 유형 및 종류의 분류 기준은 세월호 사고 관련 미디어 노출과 간접 외상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박노일, 장석환, 정지연, 2018; 정의문, 2014)을 참조하였다. 먼저, n번방 사건을 가장 많이 접한 매체 종류와 매체 유형을 선택하도록 두 문항을 설정하였다. 매체의 종류로는 TV, 인터넷, SNS, 신문이 있었으며, 매체 유형으로는 글, 그림 혹은 사진, 영상, 음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n번방 사건이 밝혀진 직후부터 일주일 이내의 뉴스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당시 뉴스 노출 요인 5문항, 그리고 현재의 뉴스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현재 뉴스 노출 요인 5문항이 질문지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은 일일 뉴스 노출량(“귀하께서는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하루에 얼마나 접하십니까?”), 상대적 뉴스 노출량(“귀하께서는 다른 뉴스들에 비해 n번방 사건 관련 뉴스를 얼마나 더 많이 보셨습니까?”), 사건 수사 경과를 접한 정도(“귀하께서는 매체를 통해 다음의 내

용을 어느 정도 접하십니까?”), 피의자에 관한 정보를 접한 정도(위와 같음), 그리고 국민 청원 및 정부의 제도적 대응을 접한 정도(위와 같음) 등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일일 뉴스 노출량을 평정하는 문항은 9개의 선택지로 제시되었으며(1 = 15분 미만, 9 = 2시간 이상), 다른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각각의 점수를 표준화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내적 합치도 계수는 .78(당시 뉴스 노출 .63, 현재 뉴스 노출 .83)이었다.

간접 외상

연구 참가자의 간접 외상은 허연주와 이민규(2017)가 개발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 외상 척도(Indirect Trauma Scale of Social Disaster: ITSSD)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개인적 대응 반응(예: “어쩐지 무섭고 불쾌했다.”), 사회적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 감정(예: “정부 혹은 사회에 실망했다.”), 세상에 대한 불신 반응(예: “인간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그리고 증상 영역(예: “사건을 떠올리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감정이 솟구쳤다.”)으로 4개의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¹⁾. 본 연구에서는 사건이 밝혀진

1) 간접 외상의 하위 요인 중 ‘세상에 대한 불신 반응’의 문항과 종속 변수인 세상에 대한 신념 간에 내용적인 유사성이 있어, 세상에 대한 불신 반응 요인을 제외한 간접 외상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상에 대한 불신 반응을 제외한 간접 외상은 여전히 당시 뉴스 노출($r = .347, p < .001$) 및 세상에 대한 신념($r = -.316, p < .0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당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69, SE = .028, CI [-.139, -.021]$. 따라서 세상에 대한

당시의 뉴스 노출이 당시에 간접 외상을 겪게 만들었을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에, 참가자는 21개의 문항에 n번방 사건이 밝혀진 직후부터 일주일 이내를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평정 기준은 5점 리커트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간접 외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5(사회적 재난에 대한 개인적 대응 반응 .92, 사회적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 감정 .86, 세상에 대한 불신 반응 .79, 증상 영역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6(각 하위 요인별 .88, .82, .77, .79)으로 나타났다.

세상에 대한 신념

연구 참가자의 세상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Janoff-Bulman(1989)이 개발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World Assumptions Scale: WAS)를 번안해 사용하였다. 기존 척도는 세상의 자비(benevolence of the world), 세상의 의미(meaningfulness of the world), 그리고 자기 가치(worthiness of self) 총 세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n번방 사건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이 무엇보다 타인과 세상에 관한 신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자기 가치 요인을 제외하고 세상의 자비(예: “세상은 좋은 곳이다.”, “이 세상에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난다.”)와 세상의 의미(예: “훌륭하고 점잖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좋은 사람이라면 행운을 누릴 것이다.”) 두 개의 요인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32개의 문항 중 총 20개의 문항을 선택해 사용하

불신 반응 요인을 제외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를 본 논문에 제시하였다.

였으며,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던 연구(Van Bruggen et al., 2018)를 참고하여 9개의 문항을 역채점하였다. 평정 기준은 6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다)였으며, 총 점수가 낮을수록 세상에 대한 신념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세상의 자비 점수가 낮을수록 세상은 좋은 곳이 아니며,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하거나, 친절하지 않다고 믿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상의 의미 점수가 낮을수록 나쁜 일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발생하지 않으며, 세상의 일들은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믿음을 뜻한다. 선행 연구(Schwartzberg & Janoff-Bulman, 1991)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세상의 자비 .87, 세상의 의미 .76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 각 하위 요인의 계수는 .82(세상의 자비), .75(세상의 의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

마지막으로,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성별, 최종 학력, 거주 지역, 종교적 배경 등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묻는 문항들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이 가운데 연령은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성별은 주관식으로 답하게 하였다. 최종 학력을 묻는 문항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 졸업과 같은 8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거주 지역 문항은 서울특별시 등 대한민국 행정 구역 17개의 선택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끝으로, 종교적 배경에 관한 문항은 개신교, 불교, 가톨릭, 원불교, 무종교, 기타와 같은 6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 절차

연구 수행에 앞서 성신여자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는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0년 11월 27일까지 2일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 동의란에 표시한 후, n번방 관련 뉴스 노출에 대한 질문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 외상 척도,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인 질문지에 순서대로 응답하였다. 모든 문항에 답변한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사후 설명과 함께 설문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1,000원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을 지급하였다.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기술 통계로 연구 참가자들의 뉴스 노출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변인들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통해 당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 간의 관계에서 간접 외상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n번방 사건 관련 뉴스 노출 특성

본 분석에 앞서, 연구 참가자의 n번방 관련 뉴스 노출 특성을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n번방 사건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한 매체 종류로는 인터넷(42.5%)과 SNS(40.4%)가 가장 많았고, TV(15.8%)와 신문이(1.3%) 그 뒤를 이었다. 매체 유형으로는 글이 가장 많았으며(69.3%), 영상(19.3%)과 그림 혹은 사진(11.4%)이 그 뒤를 이었다. 매체 유형 중 음성을 통해 뉴스를 가장 많이 접했다고 보고한 참가자는 없었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 유의한 상관이 존재할 것이

표 1. n번방 사건에 관한 뉴스 노출 특성(N = 228)

		<i>n</i>	%
매체 종류	인터넷	97	42.5%
	SNS	92	40.4%
	TV	36	15.8%
	신문	3	1.3%
매체 유형	글	158	69.3%
	영상	44	19.3%
	그림 혹은 사진	26	11.4%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계수($N = 228$)

	1	2	3	4
1	1			
2	.391***	1		
3	.291***	.196**	1	
4	-.005	.047	-.349***	1
<i>M(SD)</i>	4.228(.919)	2.622(1.013)	2.814(.619)	3.260(.583)

주 1. 1 = 당시 뉴스 노출, 2 = 현재 뉴스 노출, 3 = 간접 외상, 4 = 세상에 대한 신념

주 2. 당시 뉴스 노출 및 현재 뉴스 노출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준화하지 않고 산출한 값임

주 3. * $p < .05$, ** $p < .01$, *** $p < .001$

라는 가설 1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및 표준 편차와 상관 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당시 뉴스 노출은 현재 뉴스 노출($r = .391, p < .001$) 및 간접 외상($r = .29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세상에 대한 신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005, p > .05$). 현재 뉴스 노출은 마찬가지로 간접 외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r = .196, p < .01$), 세상에 대한 신념과는 역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47, p > .05$). 그리고 간접 외상과 세상에 대한 신념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r = -.349, p < .001$). 당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을 제외하고 주요 변수들 간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었으므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당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에서 간접 외상의 매개 효과

당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간 관계를 간접 외상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가설 2)을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4 번을 실시하였으며(Hayes, 2013),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때, 여성과 남성은 간접 외상 수준($t = 6.540, p < .001$)과 세상에 대한 신념 수준($t = -4.909, p < .001$)에서 차이를 보였으므로, 성별을 더미 변수화하여 공분산으로 투입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당시 뉴스 노출은 간접 외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38, t = 4.307, p < .001$), 세상에 대한 신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beta = .098, t = 1.503, p > .05$). 동시에, 간접 외상

표 3. 당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에서 간접 외상의 매개 효과 검증($N = 224$)

경로	β	<i>SE</i>	<i>t</i>	<i>p</i>	LLCI	ULCI
당시 뉴스 노출 → 세상에 대한 신념	.098	.055	1.503	.134	-.0257	.1909
당시 뉴스 노출 → 간접 외상	.238	.049	4.307	.000	.1155	.3104
간접 외상 → 세상에 대한 신념	-.293	.072	-3.852	.000	-.0419	-.1353

은 세상에 대한 신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93$, $t = -3.852$, $p < .001$).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뉴스 노출이 세상에 대한 신념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p > .05$), 직접 효과($B = .083$)와 간접 효과($B = -.059$)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억제 효과를 동반한 비일관적 매개일 가능성을 암시하며, 더 자세한 해석은 추후 논의에서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시 뉴스 노출이 세상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 외상의 간접 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당시 뉴스 노출이 간접 외상을 거쳐 세상에 대한 신념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 외상의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59$, $SE = .025$, $CI [-.114, -.015]$. 종합하면, 당시 뉴스 노출이 세상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 외상의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으므로 간접 외상의 완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매체 종류 및 매체 유형에 따른 간접 외상 수준의 차이

추가로, n번방 사건 관련 뉴스를 주로 접한 매체 종류 및 매체 유형에 따라 간접 외상 수

표 4. 직접 효과 및 간접 효과($N = 224$)

	Effect	SE	LLCI	ULCI
총 효과	.024	.054	-.0837	.1308
간접 효과	.083	.055	-.0257	.1909
직접 효과	-.059	.025	-.1143	-.0154

표 5. 매체 종류 및 유형에 따른 간접 외상의 차이($N = 224$)

	간접 외상			
	<i>n</i>	<i>M(SD)</i>	<i>F</i>	<i>p</i>
TV	36	2.561(.724)	1.646	.180
인터넷	94	2.863(.641)		
SNS	91	2.908(.500)		
신문	3	1.921(.552)		
글	154	2.871(.634)	2.730	.067
그림 혹은 사진	26	2.980(.499)		
영상	44	2.548(.559)		

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간접 외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변수를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먼저, 매체 종류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3, 218) = 1.646, p > .05$. 다음으로, 매체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 219) = 2.730, p > .05$.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성인의 n번방 사건 관련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먼저, n번방 사건 직후 관련 뉴스에 노출된 것과 간접 외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념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n번방 사건 관련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를 간접 외상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가설과 일관되게, n번방 사건이 밝혀진 당시의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직후 관련 뉴스에 노출된 것은 세상에 대한 신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간접 외상은 당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사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즉, 당시 n번방 사건 뉴스 노출량이 많았을수록 간접 외상 수준이 높았고, 간접 외상 수준이 높았을수록 세상에 대한 신념은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n번방 사건 직후 관련 뉴스 노출이 세상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부호가 반대였다. 더불어, 총 효과의 절댓값이 직접 효과의 절댓값보다 작았으므로, 억제 효과(suppression)로 인한 비일관적 매개(inconsistent mediation)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김하형, 김수영, 2020; 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Shrout & Bolger, 2002). 억제 효과로 인한 비일관적 매개란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부호가 반대이며, 직접 효과의 크기가 총 효과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다(MacKinnon et al., 2000; Shrout & Bolger, 2002). 총 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합친 값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총 효과는 그 크기가 몹시 작았으며($c = -.004$),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자들은 매개 효과 검증 절차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상관성이 필수라고 주장하였으나(Baron & Kenny, 1986), 두 변수 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도 매개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MacKinnon, Fairchild, & Fritz, 2007).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간접 외상이 완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n번방 사건 관련 뉴스 노출이 세상에 대한 신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간접 외상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Hayes(2013)는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의 영향을 완전히 설명한다.’라는 표현은 연구 모형의 경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것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하고 다른 매개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에, ‘완전 매개’ 혹은 ‘부분 매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논의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세상에 대한 신념이 뉴스 노출로 인한 간접 외상의 영향만을 받는 변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매개 변수의 가능성을 계속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n번방 사건 관련 뉴스 노출이 세상에 대한 신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은 잠재적인 이유는 세상에 대한 신념을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를 기준으로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을 평정하였던 반면, 세상에 대한 신념은 현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유의하지 않은 상관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시점을 하나로 통일한 후, 특정 사건에 관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주요 결과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체 종류와 유형에 따라 간접 외상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n번방 사건에 관한 뉴스 노출이 간접 외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결과와 함께 고려하면, n번방 사건의 내용 자체가 간접 외상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주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뉴스를 접하는 방식과 경로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적인 해석은 사후 추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뉴스 노출을 통하여 간접 외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간접 외상도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직접적인 외상 경험과 세상에 대한 신념의 관계에 집중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

리,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도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과 관련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더불어, 본 연구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관련 뉴스를 접하는 것의 심리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뉴스 노출의 영향에 관한 후속 심리학 연구들을 위해 경험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도 지닌다. 즉, 본 연구는 매체를 통해 n번방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인지적, 정서적 영향을 폭넓게 검증하여 뉴스 노출의 심리적 영향의 범위를 밝힐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뉴스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질문지는 향후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는 상담가, 경찰 등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을 뉴스로 접하는 일반인들도 간접적인 외상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디지털 저널리즘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으며, 미디어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본 연구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한국언론연감에 따르면, 디지털 모바일 플랫폼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정형 인터넷(PC) 이용률은 2011년 54.7%에서 2019년 40.2%로 하락하였으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2011년 36.7%에서 2019년 86.4%로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뉴스 노출은 간접 외상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미디어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론은 뉴스가 가질 수 있

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여 재난이나 성범죄 사건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 참가자들이 자신의 뉴스 노출 및 간접 외상 수준을 회고식으로 평정하였기 때문에, 기억의 부정확성이나 왜곡으로 인하여 평정의 정확도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n번방 사건이 처음 밝혀진 2019년 하반기와 본 연구가 수행된 2020년 하반기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사태가 도래하였으며,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는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연구 참여자의 간접 외상을 야기한 뉴스의 내용이 n번방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듯 n번방 사건이 2019년 하반기에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기억의 부정확성과 다른 간접 외상 유발 요인들의 개입으로 측정에 오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회고식 평정의 한계에 유의하고, 추후 뉴스 노출의 인지적 및 정서적 영향을 살펴볼 때는 사건 발생과 연구 수행의 간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회고식 평정(retrospective evaluation)은 심리학 분야의 여러 연구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아동 및 청소년기의 부모 애착을 회고식으로 평가하고, 이를 성인인 연구 참가자들의 현재 심리적 상태와 연관지어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나선영, 안명희, 2011; 서지효, 장혜인, 2021; 조화진, 서영석, 2010; McCormick & Kennedy, 2000). 아울러, 정서 회상에서의 편향은 특히 긍정 정서 유발 과제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며(Wilson, Meyers, & Gilbert, 2003),

회상의 정확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기억의 정확성을 더 강화한다(Kensinger, 2007). 그리고 어떤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지, 혹은 단순히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지를 구분하여 나타내도록 요구한 과제에서, 부정적인 사건은 긍정적인 사건보다 더 자주 “기억”되는 경향이 있었다(Ochsner, 2000). 그러므로 n번방 사건이라는 극히 부정적인 사건에 관한 연구 참가자들의 기억 회상은 크게 부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설계를 따랐기 때문에 인과 관계의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즉, 간접 외상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념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수 있으나, 반대로 기존에 세상에 관한 부정적 신념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더 큰 간접 외상을 경험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종단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일 종단 연구를 수행한다면, 변수들 간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체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과 세상에 대한 신념 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또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횡단 설계의 한계로 인하여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n번방 사건에 대한 뉴스 노출을 접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인지, 혹은 n번방 사건에 대한 뉴스 노출로 인하여 형성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세상에 대한 신념은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을 통하여 외상 사건에 의한 세상에 대한 신념의 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20대 성인이었으며, 여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81.6%),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의 간접 외상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유의하게 더 부정적인 신념을 보이는 등 주요 변수들에서 성차가 관찰된 바 있다. 그러므로 만약 성비의 균형을 맞추어 참가자를 모집한다면 매개 효과 등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의 관련성은 정서 전염(emotional contagion)에 기인하였을 수 있으므로, 정서 전염의 역할을 검증한다면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의 메커니즘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 전염이란 타인의 표현, 자세 등을 자동적으로 모방하고 유사한 감정을 겪게 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Hatfield, Cacioppo, & Rapson, 1993).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정서 전염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Fan, Xu, & Zhao, 2016; Goldenberg & Cross, 2020; Kramer, Guillory, & Hancock, 2014). 일례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게시물 속 감정 표현이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Kramer et al., 2014). 연구자들은 페이스북 이용 언어를 영어로 설정한 사용자 689,00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LIWC(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software)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게시물과 부정적인 게시물을 분류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뉴스 피드에서 감정 표현에 노출되는 정도를 조작하였

다. 그 결과, 페이스북 뉴스 피드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줄어든 조건의 사람들은 통제 조건에 비해 긍정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덜 만들고, 부정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더 작성하였으며, 부정적인 표현이 줄어든 조건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접적인 접촉이 결여된 디지털 맥락에서도 정서 전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를 간접 외상이 매개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는 주로 폭력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Aronson, 2011). 이러한 뉴스 미디어에의 노출은 세상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뉴스 시청자 자신의 범죄 피해 가능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뉴스는 개인적 및 사회적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좌보경, 윤문영, 백혜진, 2013).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뉴스 노출이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간접 외상 경험에 의하여 매개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접하는 외상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간접 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을 밝혀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가 간접 외상의 수준을 줄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Dworkin, Ojalehto, Bedard-Gilligan, Cadigan, & Kaysen, 2018)에서 사회적 지지는 장기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

혀졌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과도 연관된다. 간호사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Máirean, 2015)에서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외상 후 성장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증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할 때에만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외상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외상 후 성장 간의 연관성을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므로, 향후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이 사회적 지지 및 외상 후 성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접 외상이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심리적 안녕감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심한 간접 외상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개인의 안녕감 수준과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n번방은 사라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심리학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뉴스로 지켜보는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집중하기를 촉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재난, 범죄 등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대중의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보경 (2012). 성폭력, 성매매 상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대리 외상의 관계에서 외상 신념의 매개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주환 (2020). “내 주변 남자들도?” ‘n번방’ 사태에 불안 느끼는 여성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8056500004?input=1179m> 에서 2020, 1, 20 인출.
- 김지은 (2013). 간접 외상 기억 심상과 반추 수준에 따른 외상 후 분노 수준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하형, 김수영 (2020). 비일관적 매개효과 모형의 해석 방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1), 91-115.
- 김한균 (2020). 디지털성범죄 차단과 처단 -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 -. 저스티스(178), 369-392.
- 김현주, 최희정 (2012).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적 삶의 질. 간호행정학회지, 18(3), 320-328.
- 김희진 (2020). ‘빨간 비디오’가 ‘n번방’이 되기까지...눈감아준 ‘n번의 순간’들이 ‘성착취’ 만들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706000005&code=940100 에서 2021, 01, 20 인출.
- 나선영, 안명희 (2011).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 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331-355.
- 노지민 (2020). 코로나19·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뉴스에 우울하십니까.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

- ml?idxno=206187 에서 2020, 1, 20 인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디지털 성범죄.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L1> 에서 2021, 1, 10 인출.
- 류경희, 김태경 (2017). 경찰관의 대리외상화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 17(3), 59-86.
- 박노일, 장석환, 정지연 (2018). 미디어 이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9(4), 673-683.
- 박상의, 정유지, 이정현 (2018). 미디어 노출에 의한 간접외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설문 조사 연구. *대한불안의학회지*, 14(2), 71-79.
- 백준혁, 정영은, 채정미, 명준표, 임현우, 채정호 (2010). 소방 공무원에서 간접 외상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불안의학회지*, 6(1), 65-70.
- 서지효, 장혜인 (2021). 아동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대한 지각이 성인진입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우울경험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1), 1-19.
- 손승희 (2014).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외상 및 관련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0), 269-294.
- 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6).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89-120.
- 이미혜, 성승연 (2014). 상담자들의 대리외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109-137.
- 이혜정 (2020). 디지털 성범죄 “이런 수법 조심하세요”. EBS.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253722/>
- N 에서 2021, 1, 20 인출.
- 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11-430.
- 정의문 (2014). 세월호 사건 매체노출이 대학생들에게 미친 간접외상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용래 (2012). 한국판 외상 후 인지 검사의 요인구조와 수렴 및 변별타당도: 외상경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12(3), 369-391.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좌보경, 윤문영, 백혜진 (2013). 미디어, 지각된 위험 특성, 위험 인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발암물질 위험 이슈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7(4), 72-109.
- 트위터 (2020). 트위터에서 함께 보낸 2020년. https://blog.twitter.com/ko_kr/topics/insights/2020/spending-2020-together-on-twitter-ko.html 에서 2021, 1, 12 인출.
- 특별취재팀 (2019). “소라넷 계보 잇겠다”...울 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637.html 에서 2021, 2, 07 인출.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19). 한국언론연감 2019.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재단).
- 한효정, 김민, 남상인 (2017). 세월호 참사 추모활동 대학생의 의도적 반추, 자기노출, 추모활동이 간접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 영향. 청소년학연구, 24(6), 179-204.
- 허연주, 이민규 (2017).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3), 381-407.
- Ahern, J., Gales, S., Resnick, H., Kilpatrick, D., Bucuvalas, M., Gold, J., & Vlahov, D. (2002). Television images and psychological symptoms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Psychiatry*, 65(4), 289-300.
- Ahern, J., Galea, S., Resnick, H., & Vlahov, D. (2004). Television images and probabl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September 11: the role of background characteristics, event exposures, and perievent panic.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3), 217-226.
- Aronson, E. (2011). *The social animal*. (11th Eds.) Worth Publishers Ltd. 인간, 사회적 동물. (박재호 역, 2014). 서울: 탐구당.
- Baird, K., & Kracen, A. C. (2006). Vicarious traumatization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 research synthesi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9(2), 181-188.
- Ball-Rokeach, S. J., & DeFleur, M. L.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1), 3-2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nstein, K. T., Ahern, J., Tracy, M., Boscariono, J. A., Vlahov, D., & Galea, S. (2007). Television watching and the risk of incident probabl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5(1), 41-47.
- Chiricos, T., Padgett, K., & Gertz, M. (2000). Fear, tv news, and the reality of crime. *Criminology*, 38(3), 755-785.
- Crockett, M. J. (2017). Moral outrage in the digital age. *Nature Human Behaviour*, 1(11), 769-771.
- Duffy, E., Avalos, G., & Dowling, M. (2015).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emergency nurses: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Emergency Nursing*, 23(2), 53-58.
- Dworkin, E. R., Ojalehto, H., Bedard-Gilligan, M. A., Cadigan, J. M., & Kaysen, D. (2018). Social support predicts reductions in PTSD symptoms when substances are not used to cope: A longitudinal study of sexual assault survivo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29, 135-140.
- Fan, R., Xu, R., & Zhao, J. (2016). Higher contagion and weaker ties mean anger spreads faster than joy in social media. *ArXiv e-prints*, August 2016.
- Feldman, D. B., & Kaal, K. J. (2007). Vicarious trauma and assumptive worldview: Beliefs about the world in acquaintances of trauma victims. *Traumatology*, 13(3), 21-31.
- Figley, C. R. (1995). Compassion fatigue as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An overview. In C. R. Figely (Ed.),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p. 1-20). New York: Brunner/Mazel.
- Gilovich, T., Keltner, D., Chen, S., & Nisbett, R. E. (2016). *Social Psychology* (4th ed.). New

- York: Norton.
- Goldenberg, A., & Gross, J. J. (2020). Digital emotion contag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4(4), 316-328.
- Gottfried, V. M. (2010). *Indirect trauma syndrome: Empirical validation of a model that synthesizes secondary and vicarious trauma*. University of Louisville.
- Han, L., Sun, R., Gao, F., Zhou, Y., & Jou, M. (2019). The effect of negative energy news on social trust and helping behavio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2, 128-138.
- Hatfield, E., Cacioppo, J., & Rapson, R. (1993). *Emotional contag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The Guilford Press Ltd.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이형권 역, 2015). 서울: 신영사.
- Janoff-Bulman, R. (1989). Assumptive worlds and the stress of traumatic events: Applications of the schema construct. *Social Cognition*, 7(2), 113-136.
- Janoff-Bulman, R., & Frieze, I. H. (1983). A theoretical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reactions to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9(2), 1-17.
- Jenkins, S. R., & Baird, S. (2002).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vicarious trauma: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5), 423-432.
- Kensinger, E. A. (2007). Negative emotion enhances memory accurac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4), 213-218.
- Knight, C. (2013). Indirect trauma: Implications for self-care, supervision, the organization, and the academic institution. *Clinical Supervisor*, 32(2), 224-243.
- Kramer, A. D. I., Guillory, J. E., & Hancock, J. T. (2014). Experimental evidence of massive scale emotional contagion through soci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1(24), 8788-8790.
- Li, Y., Yang, S., Zhang, S., & Zhang, W. (2019). Mobile social media use intention in emergencies among Gen Y in China: An integrative framework of gratifications, task-technology fit, and media dependency. *Telematics and Informatics*, 42, 1-20.
- Lowrey, W. (2004). Media dependency during a large-scale social disruption: The case of September 11. *Mass Communication & Society*, 7(3), 339-357.
- MacEachern, A. D., Jindal-Snape, D., & Jackson, S. (2011). Child abuse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Safety and Ergonomics*, 17(4), 329-339.
- MacKinnon, D. P., Fairchild, A. J., & Fritz, M. S. (2007). Mediation analysi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593-614.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s.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Magwaza, A. S. (1999). Assumptive world of traumatized South African adults. *Journal of*

- Social Psychology*, 139(5), 622-630.
- Măirean, C. (2016).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Social Science Journal*, 53(1), 14-21.
- Matthews, L. T., & Marwit, S. J. (2004). Examining the assumptive world views of parents bereaved by accident, murder, and illnes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48(2), 115-136.
- McCann, I. L., & Pearlman, L. A. (1990).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 131-149.
- McCormick, C. B., & Kennedy, J. H. (2000). Father-child separation, retrospective and current views of relationship with father, and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Psychological Reports*, 86(3), 827-834.
- Ochsner, K. N. (2000). Are affective events richly “remembered” or simply familiar? The experience and process of recognizing feelings pas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29(2), 242-261.
- Pfefferbaum, B., Doughty, D. E., Reddy, C., Patel, N., Gurwitch, R. H., Nixon, S. J., Tivis, R. D. (2002). Exposure and peritraumatic response as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in children following the 1995 Oklahoma City bombing. *Journal of Urban Health: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79(3), 355-363.
- Poulin, M. J. & Silver, R. C. (2019). When are assumptions shaken? A prospective,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negative life events and worldviews in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83, 1-12.
- Schwartzberg, S. S., & Janoff-Bulman, R. (1991). Grief and the search for meaning: Exploring the assumptive worlds of bereav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0(3), 270-288.
- Sexton, L. (1999). Vicarious traumatization of counsellors and effects on their workplac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7(3), 393-40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lver, R. C., Holman, E. A., Anderson, J. P., Poulin, M., McIntosh, D. N., & Gil-Rivas, V. (2013). Mental- and physical-health effects of acute exposure to media images of the September 11, 2001, attacks and the Iraq War. *Psychological Science*, 24(9), 1623-1634.
- Silver, R. C., Holman, E. A., McIntosh, D. N., Poulin, M., Gil-Rivas, V., & Pizarro, J. (2006). Coping with a national trauma: A nationwide longitudinal study of responses to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In Y. Neria, R. Gross, R. D. Marshall, & E. S. Susser (Eds.), *9/11: Mental health in the wake of terrorist attack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Bruggen, V., ten Klooster, P. M., van der Aa, N., Smith, A. J., Westerhof, G. J., & Glas, G. (2018). Structural validity of the world assumption scal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6), 816 - 825.

- Wagner, S. L., McFee, J. A., & Martin, C. A.
(2009). Effects of traumatic stress on
firefighters' world assumptions. *Traumatology*,
15(1), 75-84.
- Wilson, T. D., Meyers, J., & Gilbert, D. T.
(2003). "How happy was I, anyway?" A
retrospective impact bias. *Social Cognition*,
21(6), 421-446.

논문 투고일 : 2021. 05. 04

1 차 심사일 : 2021. 05. 27

게재 확정일 : 2021. 07. 27

The Relation between Exposure to the News of the nth Room Case and World Assump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Indirect Trauma

Chayoung Kim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mpirically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news of the nth Room Case, indirect trauma, and beliefs about the world among adults in their 20s. A total of 228 adults in their 20s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designed to study the association above. Analysis using SPSS 25.0 showed that participants who were exposed to more related news immediately after the nth Room case was revealed experienced a higher level of indirect trauma. Furthermore, indirect trauma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the news of the nth Room Case and beliefs about the world.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impact of news exposure on beliefs about the world through indirect trauma, suggesting that, like disasters, sex crimes can cause indirect trauma to third parties through the news. However, this study was limited to adults in their 20s, and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women; therefore, future studies using samples representing demographically more diverse groups are needed. Future research could als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motional contagion mediating or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exposure and indirect trauma.

Key words : nth Room Case, news exposure, indirect trauma, beliefs about the world